

경북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연구

류 중 우*

요 약 문

경북의 경제·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경북의 GRDP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생산지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고용 측면에서도 경북의 수도권 유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실업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북의 주력업종인 제조업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생산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의 상시 위기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전통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호등식 ‘中企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혁신 바우처사업, 기술닥터제 도입시행, 지역특화연구산업 연계 지원 등의 지원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과 경북 위기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고, 23년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할 위기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위기대응, 위기대응지원센터, 중소기업, 위기지역, 지역경제, 경상북도

I. 서 론

최근 5년간 경북 지역경제 현황은 지역 내 총생산 및 총부가가치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전국 대비 경북의 총생산 비중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장, ryujw@gbtp.or.kr

히, '20년 기준 경북 지역내 제조업의 경우에는 총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3.6%로 전국 기준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율인 -0.7% 대비 하락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경기 현황은 지역내 제조중소기업의 업황·매출이 '21년 12월 전월대비 일시적 상승 후, '22년 1월에서 '22년 3월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 현황 역시 22년 1분기 기준 경북 지역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전기대비 감소하고, 실업자는 전기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개년도 경북 지역내 총생산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p)	연평균 증가율
전국	1,743,575	1,840,349	1,902,528	1,927,421	1,936,043	2.7
지역내 총생산	107,441	110,028	108,783	106,805	105,250	-0.5
전국 대비 비중	6.2	6.0	5.7	5.5	5.4	-

주1: 총생산은 당해연도가격 기준

주2: 전국 대비 비중 = 해당 지역 총생산 / 전국 총생산 × 100

주3: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경북지역 산업현황은 '22년 1분기 기준 경북 지역 전년 동기대비 제조업 생산지수는 하락하여 생산 활동은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가 하락하여 판매 활동이 저조, 제조업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가 상승하여 제품 재고가 다소 증가하였다('22년 1분기 경북지역경제현황 분석보고서).

<표 2> 최근 5개년도 지역내 총부가가치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p)	연평균 증가율
전 산업 (비중)	101,514 (100.0)	103,801 (100.0)	102,629 (100.0)	100,542 (100.0)	98,755 (100.0)	-0.7
제조업 (비중)	48,583 (47.9)	49,410 (47.6)	47,689 (46.5)	44,031 (43.8)	41,888 (42.4)	-3.6

주1: 부가가치는 당해연도가격 기준

주2: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을 비수도권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선정,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강원·경북·대구·부산·전남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4.6억원(국비)의 예산으로 운영하였다.

5개 시·도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면서 1단계로 지역 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단계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지막으로 심층현장조사와 위기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Stand-up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인증, 컨설팅, 마케팅 등에 6백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계속)사업을 실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운영기관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가 운영예정이고, 지역별 5억원 내외(국비:지방지=8:2)로 운영예정이다. 22년에 이어 23년에도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과 온라인 실태조사, 심층현장조사 및 위기진단과 함께 컨설팅 및 중장기 로드맵수립 등을 할 예정이다.

위기징후 단계 분류는 위기징후단계 결정 전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를 분류하여 심층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 2단계(양호, 주의)로 위기징후 단계를 분류, 주의단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와 위기진단을 실시하

였다. 위기징후 모니터링 결과 경북지역은 주의단계 지역은 총 36개로, 경주시 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천시, 상주시가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위기징후가 나타난 지역 내 중소기업의 R&D지원을 확대하여 전통산업 관련 기업들이 기술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22년 1분기 경북 위기징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위기대응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소기업 모니터링과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23년부터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할 위기지원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역 단위의 중소기업 위기가 상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미흡하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밀집 지역 중심의 상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전통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호등식 ‘中企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전통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혁신 바우처사업, 기술닥터제 도입시행, 지역특화·연고산업 연계 지원 등의 지원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전국 사업체수 중 약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 고용 창출·생산 유발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년 1분기 경북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기업의 경기현황 및 위기징후 발생 원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응답기업 315개사 중 전년 동일분기 대비 현재 위기상태인 기업은 95.3%(평균 2.23점)로 대다수의 기업이 전년 동일 분기 대비 다소 위기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는 현 수준과 유사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 비중이 단기적 전망(다음 분기)은 91.8%, 장기적 전망(1년 후)은 88.5%로 나타났다. 전년 동일분기 대비 현재 경영상황 관련하여 위기상태인 기업은 매출액 감소(19.9%), 수익성 하락(18.4%)을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경영위기 현황 및 전망



주) 위기상태 : 전년 동일분기 대비 현시점의 경영상황을 [1] 매우 그러함, [2] 다소 그러함, [3] 보통인 경우; 비위기상태 : [4] 별로 그렇지 않음, [5] 전혀 그렇지 않음인 경우

주) 악화 전망 : 현재 대비 다음 분기 예상되는 경영상황 [1] 매우 악화될 전망이다, [2]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3] 유사할 전망이다인 경우; 호전 전망 : [4]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5] 매우 호전될 전망이다인 경우

자료 : 2022년 1분기 경상북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2.07.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북도 내 밀집지역 소재 기업들이 생각하는 경영위기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해 경영위기를 타파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지역중소기업 경기 동향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3.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위기에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를 위해 경북도 내 경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정책 대상선별을 위해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인프라 및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도 단위의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를 모니터링 한다는 점과 함께 위기지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지역중소기업 경기동향 등 여러자료를 결합하여 경북지역 상시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 및 실태조사에 기초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활성화 및 맞춤형지원 정책을 위한 상시적 위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수적 요소이다.

즉, 밀집지역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 조사·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체계적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속적 지역 中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상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

역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수립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과 중앙의 공동협력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제위기 발생 예측과 위기·성장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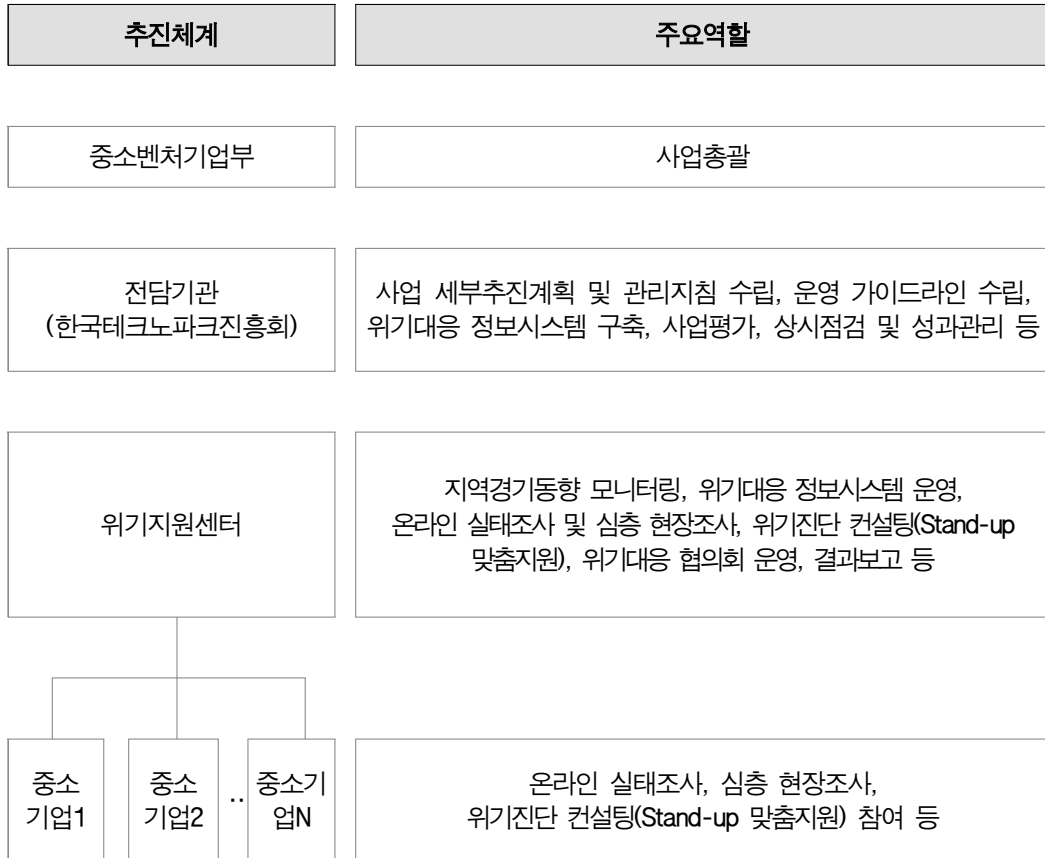
2. 사업운영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총괄을 담당하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관리지침 수립·운영과 가이드라인 수립,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평가, 상시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진행한다. 각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는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과 온라인실태조사, 심층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2022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지원센터에서는 시범지역(5개 시·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위의 경제지표 조사 및 밀집지역 위기징후 진단·분석하는 경기동향 모니터링, 온라인 실태조사, 기업 현장 인터뷰 그리고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Stand up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작성 및 지역별 위기에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경북위기지원센터는 경상북도 및 지역 내 혁신기관과 연계된 경기동향 모니터링,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운영, 온라인 실태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 위기진단 컨설팅(Stand-up 맞춤지원), 위기대응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 등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여기에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상 지정된 지역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을 의미한다.

지역중소기업 위지원센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표 4>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및 기준은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고용, 매출액, 사업장 관련 주요 지표, 위기의 전개 속도 및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중소기업 위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
2. 제1호의 위기 예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4. 위기진단 및 사업다각화 컨설팅, 특허·인증획득,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및 조치의 시행, 위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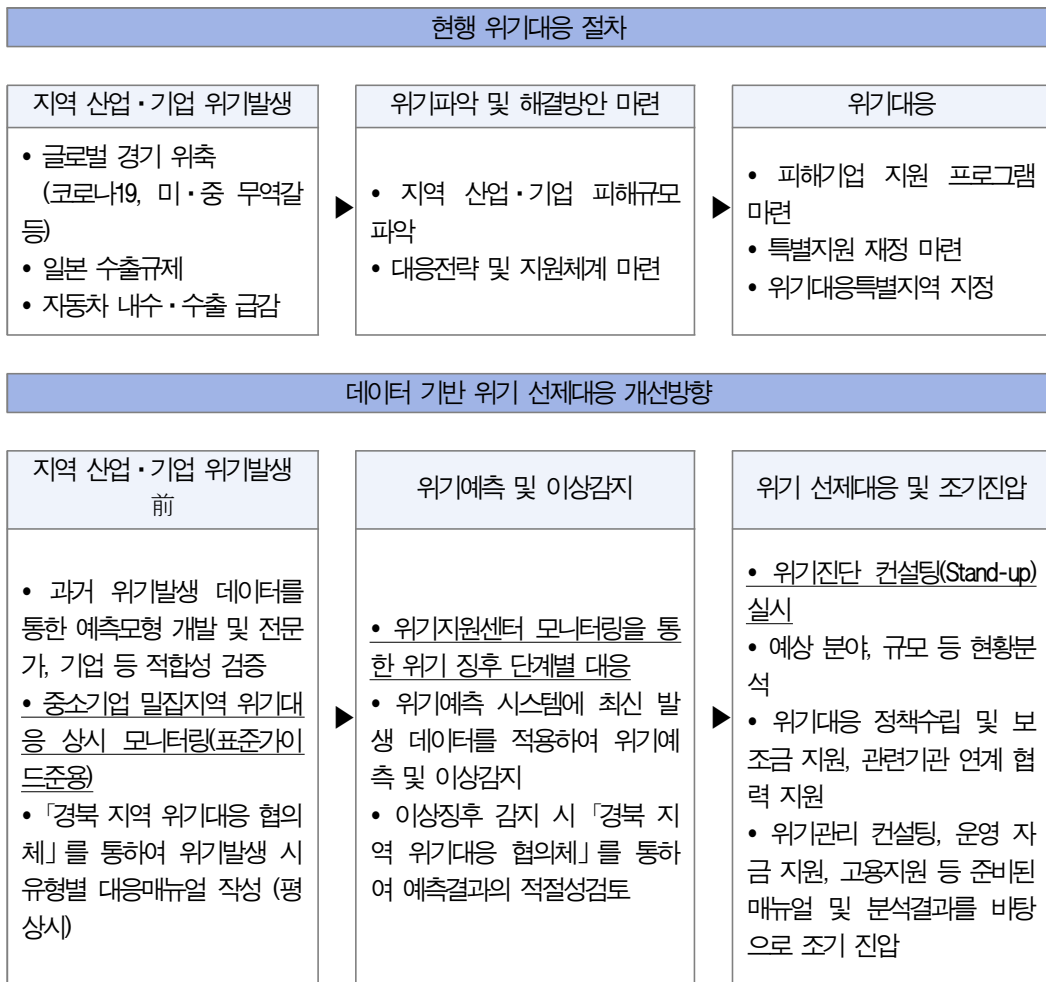
자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현재 위기대응 관련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지역 위기발생 후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피해산업 및 피해규모 등을 추측하여 위기

대응에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지역 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산업·기업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이를 전국에 통일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경북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체계구축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북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를위해 경북형 위기지원센터 구축,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운영, 심층면접, 진단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위기대응 절차 및 선제대응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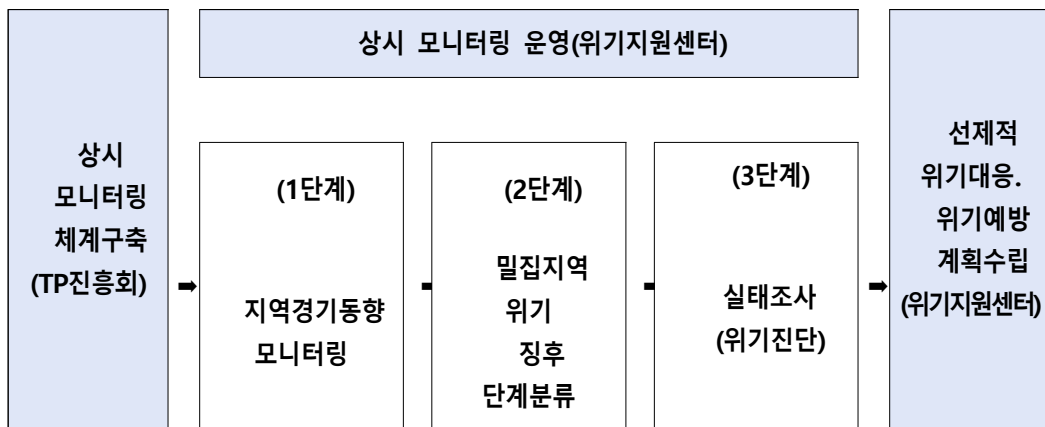
Ⅲ. 위기지원센터 사업내용

1.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 모니터링 운영

경상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모니터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지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한국테크노파크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반영,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실태조사와 심층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4〉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체계



지역별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위기지원센터)을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5>위기지원센터 단계별 추진 내용

지역경제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현황분석 + 밀집지역, 위기징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의 지역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구분 - 단계 : 양호 - 주의 - 심각 - 판단기준 : 사업장수(기업활동), 종사자수(고용), 총급여(생산·소득)
실태조사 기반의 밀집지역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조사 - 조사대상 : '주의' 단계 중심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 지역상황에 따라 '양호'단계 지역까지 조사 범위 확대 가능 - 조사내용 : 체감경기, 일반현황, 생산·경영활동 - 위기징후 원인 및 대응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온라인 조사 결과 위기징후가 포착된 기업 - 조사내용 : 온라인 조사결과 현장검증 * 밀집지역 위기징후 원인 및 기업경영상황 악화 요인 등 파악 - 결과활용 : 위기진단컨설팅(Stand-up맞춤지원)→기업지원 연계방안 마련
위기에방계획수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연별 밀집지역 모니터링 결과 종합분석

자료 : 2022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에서 경북위기대응지원센터에 송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기동향 주요지표” 데이터를 확인 후 경북 지역 고유지표를 추가 발굴 종합분석 하였고,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통한 추가분석 고유지표 개발 및 분석을 추진하였다.

지역경제현황과 관련하여 지역내 총생산, 기업폐업현황, 산업단지 현황등을 살

해보고, 지역경기동향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가동현황, 신설법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2022년 모니터링 대상인 경상북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범위는 <표 6>에서와 같이 경상북도 내 198개 밀집지역, 6,943개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수정을 통해 175개 밀집지역, 9,496개 기업의 분기별 지역경제현황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상시모니터링 및 데이터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공동으로 위기징후 판단기준을 내렸다. 2022년 경북은 해당 밀집지역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 총 971개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표 6>광역별 시·도별 중소기업 밀집지역수 및 사업체수 현황

광역권	시·도	밀집지역수	사업체수
수도권	경기도	536	52,969
	서울특별시	274	31,103
	인천광역시	80	17,634
부울경	경상남도	298	10,812
	부산광역시	91	14,450
	울산광역시	41	2,472
대경권	경상북도	198	6,943
	대구광역시	51	10,629
충청권	충청남도	183	3,876
	충청북도	153	3,259
	대전광역시	23	2,779
	세종특별자치시	19	222
호남권	전라남도	134	3,844
	전라북도	110	4,098
	광주광역시	26	4,753
강원/제주	강원도	95	2,518
	제주특별자치도	13	449
총 계		2,325	172,810

자료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1.2.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담기관인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는 분기별 “위기징후 판단지표” 데이터를 각 위기지원센터에 송부하고, 위기지원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밀집지역 위기징후 동향을 파악하여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 결정을 내리고 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판단지표는 사업장 수, 종사자 수, 총 급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업장 수는 밀집지역 내 사업장수 증감률(3개월 평균, 1년 대비)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2 표준편차 이상(하위 약 30%) 낮은 경우에 해당되고, 종사자 수는 밀집지역 내 종사자수 증감률(3개월 평균, 1년 대비)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2 표준편차 이상(하위 약 30%) 낮은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총 급여는 밀집지역 내 총급여 증감률(3개월 평균, 1년 대비)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1/2 표준편차 이상(하위 약 30%)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준을 나누고 있다. 이 밖에 추가적 지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경북지역 내 밀집지역 중소기업의 경기현황 및 위기징후 발생 원인 조사·분석을 위한 분기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북도 내 밀집지역 중 ‘주의’단계(위기징후가 일부 존재하여 선제적 위기에방이 필요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양호’단계(위기징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는 밀집지역까지 조사범위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연 900개사 정도를 선정하여 분기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기업의 경기동향 실적 및 전망, 일반현황, 생산·경영 활동, 위기의 원인 및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결과를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분석, 온라인 조사 참여기업 간 상대 비교 등 설문조사 결과 기반 분기별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기현황 및 위기징후를 분석하였다.

<그림 5> 온라인 실태조사 흐름도

구분	일정	세부내용
경북중소기업지원 협의회운영	'22.3월	· 온라인 실태조사 전 지역 위기징후 단계 결정
↓		
온라인 실태조사 계획	'22.3월/6월/9월	· 분기별 표본수집 계획 확정 · 진흥회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		
온라인 실태조사 운영	'22.3월 ~ 11월	· 온라인 실태조사(경북TP) · 분기별 300개사 조사 점검(연900개사)
↓		
온라인 실태조사 정리	'22.5월/8월/ 11월	· 온라인조사 내용 정리
↓		
자료분석회의 및 결과보고	'22.5월/9월/12월	· 온라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위기진단 컨설팅 대상기업 확정

2.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심층현장조사 진행

심층 현장조사 추진은 온라인 조사 응답 기업 중 지역별 연 100개사(분기별 30~40개사 내외)선정하여 위기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산학연 전문가와 2인1조로 기업 방문조사 실시하였다.

<그림 6> 심층조사 흐름도

구분	일정	세부내용
온라인 실태조사	'22.3월/6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300개 표본 조사 · 표본 자료 정리
↓		
경북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22.4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별 위기징후 조사 · 전문가 및 운영방안 논의
↓		
심층조사 및 위기대응 컨설팅	'22.4월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TP연계 심층조사(2인1조) · 분기별 30개사 조사 점검(연 100개사)
↓		
모니터링위원회 ' 및 세미나 운영	'22.5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조사 내용 전문가 회의 점검 · 산학연관 세미나 운영
↓		
성과분석회의 및 결과보고	'22.12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결과보고서 작성 · 대상기업 자료제공

온라인 조사결과(정량지표)를 바탕으로 현장검증, 위기징후 원인 파악, 기업 경영 애로요인 등을 조사하였으며, 온라인 조사결과 검증, 규제·애로사항 발굴, 위기 원인 정밀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지원을 위한 결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기진단 컨설팅(Stand-up) 맞춤형지원)을 추진하고 위기징후가 포착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을 통해 위기 사전예방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토대로 경북 위기대응지원센터는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분기별·연차별로 보고하고 2023년 위기에방계획 수립예정에 있다.

3.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시스템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분석으로 지역산업 위기탐지를 강화(신속성, 정합성, 활용성 확보)하고, 지역산업 비정형 통계의 수집 및 해석의 균일화를 통해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위기에측 지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작성 및 지역별 위기에방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을 하고, 상시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 위기에방 계획을 수립,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생적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의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 사각지대였던 농공단지 등에 대한 자생적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의 확대 및 추진 진행예정이다. 경북위기지원센터에는 2차 위기현황을 식별할 수 있는‘지역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2023년 계속사업으로 비수도권 14개 지역으로 확대 구축된다.

위기지원센터 운영성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2022년 경북도 내 175개 밀집지역의 9,4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동향을 분석하고 분기별 위기징후 주의단계 밀집지역 내 9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분기별 결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87개 기업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기업 애로사항 파악과 의기극불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함께 25개 위기기업에 대한 맞춤형 Stand-Up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 애로해결 및 마케팅, 시제품 제작등을 지원하였다.

이와함께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모니터링에 대한 현황점검(분기별) 실시하고 지역경제 침체 회복의 조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7〉 경북 위기대응지원센터 성과 요약

밀집지역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지원센터 시범사업 선정('22년)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중앙협력적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위기기업 적시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도모

주요내용: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 중소기업 밀집지역: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을 의미



자료 : 경북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자체보고자료. 22.12.20

IV. 결 론

1. 기업지원 체계에 대한 변화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대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지역 단위의 중소기업 위기가 상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미흡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밀집지역 중심의 상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2021년 인구감소 지역 전국 89곳 중 16개가 지정되었다. 전국 최다 선정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는 핵심인재 부족과 일자리 안전망을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및 국가경제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 경제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도 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 상시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즉, 밀집지역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 조사·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체계적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속적 지역 中企 데이터 구축과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상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수립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길 기대한다. 지역과 중앙의 공동 협력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제위기 발생 예측과 위기·성장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및 실태조사에 기초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활성화 및 맞춤형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상시적 위기대응 센터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기지원센터 확대 및 발전방향

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23년부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지원센터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적기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의 경우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 신소재 부품가공,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등 4대 산업별 주력사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었다. 이에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위기대응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앙과 지역의 협업, 산학연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정례적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과 중앙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제위기 발생에 대한 예측과 진단을 통한 기업지원이 필요하고 보고 있다. 산학연관 정기간담회 및 상시미팅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기업들이 힘들어하는 신규시장 개척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력산업 R&D, 비R&D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경북도 내 혁신기관과 경상북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업성장 지원 노력 또한 필요하다.

경북의 기반산업인 제조업과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新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중소벤처기업청은 위기대응 구축사업과 더불어 지역내 밀집지역 위기진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R&D, 비R&D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경북테크노파크(2022), “경북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경북테크노파크(2022), “ 2022년 1분기/2분기 경상북도 밀집지역 위기장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경북테크노파크(2022), “ 2022년 1분기/2분기 경상북도 지역경제현황 분석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경북테크노파크(2022), “ 2022년 1분기 경상북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심층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경북테크노파크(2022), “ 2022년 1분기 경상북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2022.04.),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21.2.),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Abstract

A Study on the Gyeongbuk Crisis Support Center

Ryu, Jong-Woo

Looking at Gyeongbuk's economic and industrial environment, since 2017, Gyeongbuk's GRDP has turned to a declining trend, and the manufacturing production index has been declining every year.

In terms of population and employment, the number of outflows from the metropolitan area of Gyeongbuk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re decreasing every year,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8.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is the main industry of Gyeongbuk, is expected to continue experiencing sluggish production for the time being. Therefore, preemptive and flexible response efforts are required.

It is required to prepare a regular crisis response system centered on local SMEs and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need to introduce a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SMEs concentration areas' that can diagnose traditional local SMEs and respond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monitor the management status of local SMEs, especially in areas where SMEs are concentrated and to establish a preemptive response system in case of crisis.

Key Words : Crisis Support, Gyeongbuk, Industry Crisis, Small & medium-sized businesses